일본문화용어의 사실적 의미전달을 위한 번역 연구
-일본 스모기술용어의 한국어번역 연구-

이상진*
lee3137@cs.ac.kr

<目次>

1. 서론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3. 스모기술 번역
   3.1 기본기술
   3.2 던지기 기술
   3.3 걸기 기술
   3.4 비틀기 기술
   3.5 뒤집기 기술
   3.6 특수기술
   3.7 비기술
4. 스모기술용어의 한국어번역
   4.1 기본기술
   4.2 던지기 기술
   4.3 걸기 기술
   4.4 비틀기 기술
   4.5 뒤집기 기술
   4.6 특수기술
   4.7 비기술
5. 결론

主題語: 일본문화용어(Japanese Cultural terms), 한국어번역(Korean translation), 오즈모(The Grand Sumo Tournament), 스모기술용어(Sumo technology terms), 씨름용어(Korean Wrestling terms)

1. 서론

일본어의 번역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일본어 단어를 일대일로 한국어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학습자를 자주 접하곤 한다. 어휘나 문장을 일대일 혹은 일대다의 대응으로 일정한 번역어로 고정적인 틀에 의해 대응시키는 기계번역의 경우를 통해 번역 작업을 기계적인 작업으로 받아들이거나 외국어 학습은 곧 사전을 찾는 작업이다. 따라서 사전만 있으면 해석 혹은 번역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오해라고 생각한다. 일본어사전에서의 일본어대 한국어의 일대일 대응은 항상 고정이며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을 것이다.

* 창신대학교 외국어학부 교수

일본어를 한국어로 혹은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함에 있어 부딪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번역투와 오역의 문제 다음으로 번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이근희[1]는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휘들의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임을 지적하며 "문화관련 어휘란 원천 텍스트에서 언급된 특정 어휘나 문장이 특정 문화권에 한정되어 있는 요소로서, 그대로 번역 텍스트에 옮겼을 때 최종 독자들이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번역자의 중재역할이 필요하며, 번역자는 중재를 위해 기존 번역자들의 번역 텍스트에서 도출한 다양한 번역 방법과 전략에서 번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는 일본문화를 대표하는 키워드의 하나이며 일본인들이 가장 즐기는 스포츠인 '스모'와 관련된 내용을 번역 혹은 통역작업을 함에 있어 용어들이 가지는 사전적 의미 파악이 가능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용어의 개념 정리 작업이 극히 미비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일본스모협회에서 주관하는 '오즈모(大相撲)'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술 87가지를 보다 정확한 일본문화 이해 및 사실적인 의미의 전달을 위한 통번역 연구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관점을 논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본 연구를 준비함에 있어 한국의 씨름과 일본의 스모는 단순 기술의 유사성을 이유로 일대일 번역이 용이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기존 관련 연구물을 조사하였으나 경기 방식이나 기술의 세부적인 성격 등의 차이로 인하여 단순 비교는 용이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철희, 이용인이 발표한 씨름과 스모의 전반적인 비교연구[2]는 선행연구로서 많은 참고가 되었는데, 특히 스모의 승부기술을 우리말로 설명을 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는 일본 스모기술의 분석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본어 및 일본 문화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와 지식을 가지지 못한 일반인들에게 해당용어를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용어로의 정리를 시도해 본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스모의 기술은 일본스모협회에서 규정한 87가지[3]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본스모협회에서 제시한 기술 설명의 번역 작업을 근거로 하여 명사화된 용어로서 기술 용어를 정의해 보았다. 아울러 한국씨름연구소 박승한 소장의 자문과 협조로 한국의 씨름용어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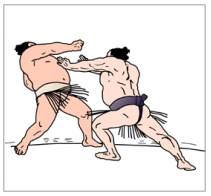
1) 이근희(2008)『번역의 이론과 실제』한국문화사, p.6
2) 이철희·이용인(1978)「씨름과 스모우의 비교연구」『충남대학교자연과학연구소학술연구지』제5권
3) 승부기술(決まり手)82수와 비기술(非技)5수

비교도 시도해 보았다. 금번 작업과정 중 일반 한국인이 스모 기술용어의 이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 설명을 거쳐 적절한 해당 한국어를 생산해 내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함에 있어 비록 원어 혹은 한국의 씨름용어와 전적으로 똑같은 의미를 가진 번역어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본 스모전문가나 한국의 씨름전문가의 입장이 아닌 번역자로서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며, 스모기술명은 음차번역을 기본으로 한글표기[4] 하였다.

3. 스모기술 번역[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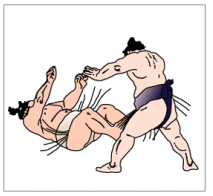
3.1 기본기술(基本技)

① 쓰키다시(突き出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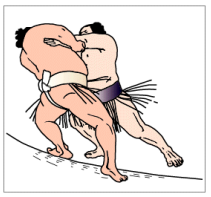
팔을 뻗어 상대방의 가슴 등을 손바닥으로 내밀치어 씨름판 밖으로 밀어내는 기술

② 쓰키타오시(突き倒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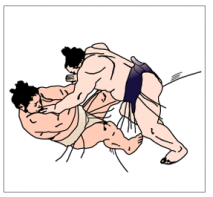
팔을 뻗어 상대방의 가슴 등을 손바닥으로 내밀치어 넘어뜨리는 기술

③ 오시다시(押し出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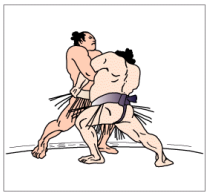
양쪽 혹은 한쪽 겨드랑이 밑이나 가슴에 대고 손을 찔러 넣어 상대를 팔로 밀어 올려 시름판 밖으로 밀어내는 기술

④ 오시타오시(押し倒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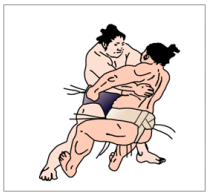
밀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기술

⑤ 요리키리(寄り切り)



양팔로 샅바를 맞잡은 채 자신의 몸을 상대방에게 밀착시켜 전면 혹은 측면으로 움직이며 시름판밖으로 내보내는 기술

⑥ 요리타오시(寄り倒し)



양팔로 샅바를 맞잡은 채 상대를 씨름판의 가장자리에서 넘어뜨리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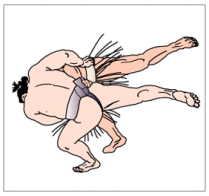
4) 본고의 스모기술용어의 한글표기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일본어)표기 일람표에 준하여 표기한 것이다.
5) 일본스모협회홈페이지(http://sumo.goo.ne.jp/kimarite/index.html)에서 공개한 '決まり手一覧'의 그림과 기술 설명을 번역한 것임

⑦ 아비세타오시(浴びせ倒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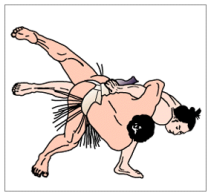
	서로 맞잡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몸을 덮쳐 누르듯이 자신의 체중을 실어 넘어뜨리는 기술

3.2 던지기 기술(投げ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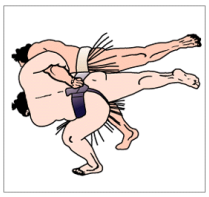
① 우와테나게(上手投げ)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 넣은 상대의 손 위로 샅바를 잡고 던지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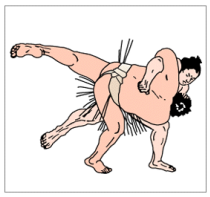
② 시타테나게(下手投げ)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 넣은 손으로 샅바를 잡아 던지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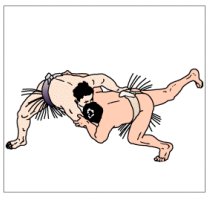
③ 고테나게(小手投げ)

	겨드랑이 밑으로 찔러 넣은 상대의 손을 껴안고서 샅바를 잡지 않고 던지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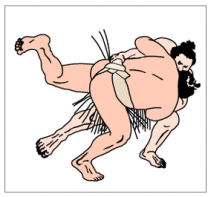
④ 스쿠이나게(掬い投げ)

	샅바를 잡지 않고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 넣은 상대의 손을 빼고 상대방의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 올리듯이 던지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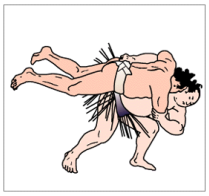
⑤ 우와테다시나게(上手出し投げ)

	상대방이 내민 팔 위로 상배방의 샅바를 잡은 팔굼치로 상배방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가슴을 펴면서 끌어당기듯 상대를 앞쪽으로 넘어뜨리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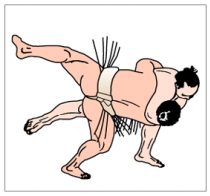
⑥ 시타테다시나게(下手出し投げ)

	상대방이 내민 팔 아래로 상배방의 샅바를 잡아 당겨 겨드랑이를 조여 가슴을 펴면서 상대방을 끌어당기듯 앞쪽으로 던지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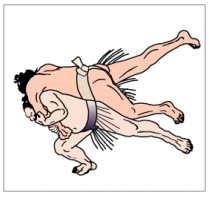
⑦ 고시나게(腰投げ)

	서로 맞잡은 팔에 상관없이 깊이 허리를 넣고 상대방의 몸을 자신의 허리에 올려 상대방을 메치는 기술. 샅바를 잡지 않고 내던지는 경우도 있다.

⑧ 구비나게(首投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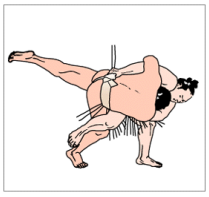
	좌우측 한쪽 손으로 상대방의 목을 감아쥐고 끌어당기듯 던지는 기술

⑨ 잇폰세오이(一本背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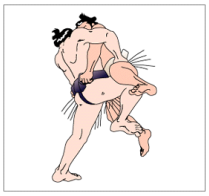
상대방의 한쪽 팔을 양손으로 붙잡고 상대방의 가슴 품으로 파고 들어가 어깨로 메고서 앞쪽으로 메쳐 쓰러뜨리는 기술

⑩ 니초나게(二丁投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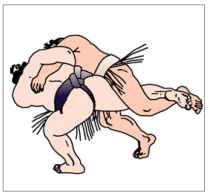
양팔로 상대방의 샅바를 잡은 채 왼(오른)쪽 다리를 상대방의 오른(왼)쪽 다리 무릎 밖으로 걸고서 뿌리치듯이 던지는 기술

⑪ 야구라나게(櫓投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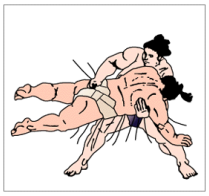
양팔로 상대방의 샅바를 잡은 채 상대방의 샅바를 충분히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이나 허벅지를 상대방의 사타구니에 넣어 그 다리에 상대방의 몸을 실듯이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번쩍 들어 올려 던지는 기술

⑫ 가케나게(掛け投げ)



양팔로 상대방의 샅바를 잡은 채 공방을 하면서 한쪽 발을 상대방의 사타구니 안쪽으로 넣어 걸고서 튕겨 올리듯이 던지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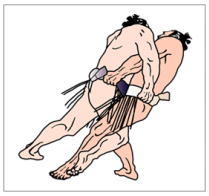
⑬ 쓰마미나게(つまみ投げ)



상대방의 뒤쪽 샅바를 붙잡고 붙잡아 올린 뒤쪽 방향으로 던지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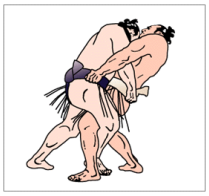
3.3 걸기 기술(掛け手)

① 우치카케(内掛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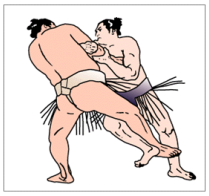
자신의 오른(왼)쪽 발을 상대방의 왼(오른)쪽 다리 안쪽으로 걸고 그 다리를 끌어당겨 상대방을 뒤로 젖혀 쓰러뜨리는 기술

② 소토카케(外掛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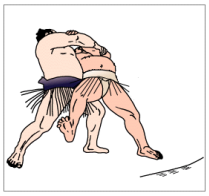
자신의 오른(왼)쪽 발을 상대방의 왼(오른)쪽 다리 바깥쪽으로 걸고 그 다리를 끌어 당겨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기술

③ 종카케(ちょん掛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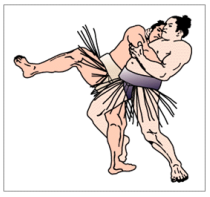
자신의 오른(왼)쪽 발끝을 상대방 오른(왼)쪽 발 뒷굼치 안쪽으로 걸어 앞쪽으로 끌어당겨 상체를 뒤로 젖혀 상대를 옆쪽이나 뒤쪽으로 비틀어 쓰러뜨리는 기술

④ 기리카에시(切り返し)



왼(오른)쪽에서 오른(왼)쪽 무릎의 바깥쪽으로 자신의 무릎을 대고서 뒤쪽으로 비틀듯이 쓰러뜨리는 기술

⑤ 가와즈가케(河津掛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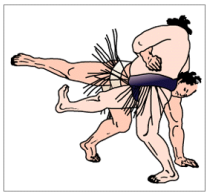


자신의 오른(왼)쪽 발을 상대의 왼(오른)쪽 다리 안쪽으로 걸어 반동을 주면서 동시에 상대의 목 등을 껴안고서 몸을 뒤집어 뒤쪽으로 넘어뜨리는 기술

⑥ 게카에시(蹴返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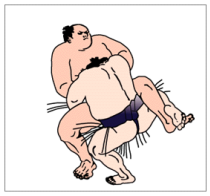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오른(왼)쪽 발목을 오른(왼)발 발바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차는 기술

⑦ 게타구리(蹴手繰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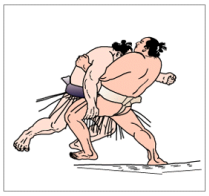
마주 보고 일어서는 순간 몸을 펴고 상대의 발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차면서 어깨를 치거나 손을 끌어 당겨 앞으로 넘어뜨리는 기술

⑧ 미도코로제메(三所攻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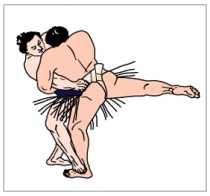
상대의 오른(왼)쪽 발을 안쪽 혹은 바깥쪽으로 걸어 왼(오른)발을 손으로 떠올리고 머리로 상대의 가슴을 누르며 뒤로 젖혀 쓰러뜨리는 기술

⑨ 와타시코미(渡し込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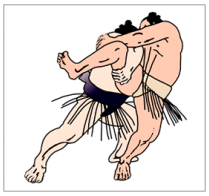
상대의 무릎이나 허벅지를 한 손으로 바깥쪽에서 끌어안고서 안 쪽으로 당기며, 또 다른 한손으로 상대를 밀면서 자신의 체중을 실어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

⑩ 니마이케리(二枚蹴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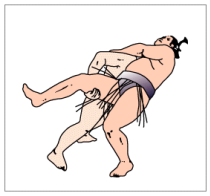
상대의 몸을 들어 올려 오른(왼)발로 상대의 왼(오른)발의 복사뼈 부위를 바깥쪽으로 차고 찬 발 방향으로 넘어뜨리는 기술

⑪ 고마타스쿠이(小股掬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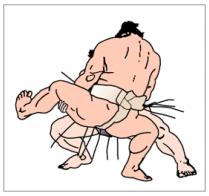
메치기를 당한 상대가 다리를 앞쪽으로 내밀 때 그 다리의 안쪽을 한발로 걸어 올려 상대를 얼굴이 위로 향하게 쓰러뜨리는 기술

⑫ 소토고마타(外小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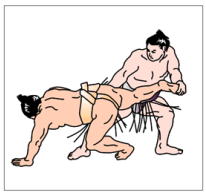
메치기나 걸기 공격을 받은 상대가 앞으로 내민 오른(왼)발을 오른(왼)발로 바깥쪽에서 걸어 올려 상대를 얼굴이 위로 향하게 넘어뜨리는 기술

⑬ 오마타(大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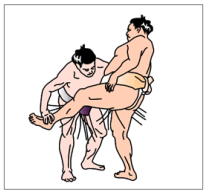
메치기나 걸기 공격을 받은 상대가 사타구니를 들어 올리는 것을 피해 반대 측의 발을 내밀 때, 먼 쪽에 있던 발을 안쪽으로 들어 올려 상대의 얼굴이 위로 향하게 넘어뜨리는 기술

⑭ 쓰마토리(褄取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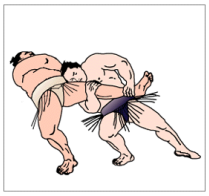


상대의 몸을 옆으로 떠밀어 앞쪽으로 중심을 잃은 상대의 발끝을 뒤쪽으로 당겨 올려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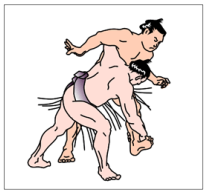
⑮ 고즈마토리(小褄取り)

	상대의 발목을 정면에서 붙잡아 넘어뜨리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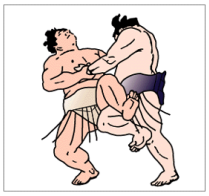
⑯ 아시토리(足取り)

	상대의 아래쪽으로 파고들어 양손으로 상대의 한쪽 발을 잡고 넘어뜨리거나 씨름판 밖으로 내보내는 기술

⑰ 스소토리(裾取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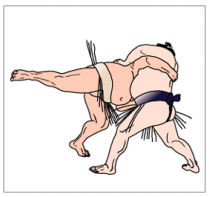
	상대의 메치기 공격을 방어하며 한쪽 손으로 상대의 발목을 바깥쪽에서 잡고 넘어뜨리는 기술

⑱ 스소하라이(裾払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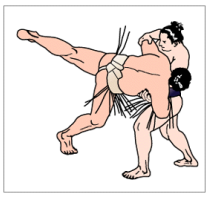
	상대가 밀거나 붙으려고 할 때 자기의 몸을 빼고 상대방의 샅바를 잡아 앞으로 넘어뜨리는 공격에 대해 상대가 방어하려고 오른(왼)발을 앞으로 내밀 때 뒤쪽에서 왼(오른)발을 뿌리치면서 넘어뜨리는 기술

3.4 비틀기 기술(捻り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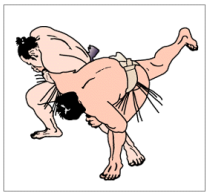
① 쓰키오토시(突き落し)

	한쪽 손을 상대의 겨드랑이 밑이나 옆구리 밑에 대고서 가슴을 펴고 상대의 중심을 흔들면서 비스듬히 아래쪽으로 누르면서 넘어뜨리는 기술

② 마키오토시(巻き落とし)

	상대가 나오는 반동을 이용하여 샅바를 잡지 않고 샅바를 잡은 손으로 상대의 몸을 안고 좌우측으로 비틀어 쓰러뜨리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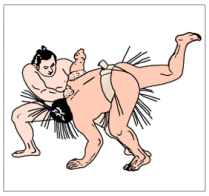
③ 돗타리(とったり)

	떠미는 기술이나 샅바를 잡기 위한 공방 중에 상대의 한쪽 팔을 양손으로 붙잡고 가슴을 펴고 앞쪽으로 틀어돌려 넘어뜨리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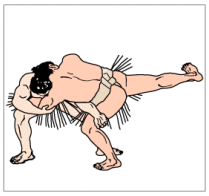
④ 사카돗타리(逆とったり)

	상대가 양손으로 한 쪽 팔을 잡아 채어 넘기는 기술을 걸어 올 때 잡힌 팔을 빼면서 허리를 틀어 역으로 상대를 넘기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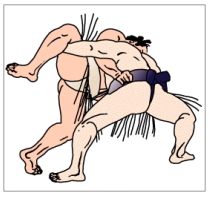
⑤ 가타스카시(肩透かし)

	샅바를 잡은 손으로 상대의 팔을 끼거나 겨드랑이에 걸듯이 앞으로 당겨 가슴을 펴고 다른 손으로 상대의 어깨 등을 쳐서 고꾸라뜨리는 기술

⑥ 소토무소(外無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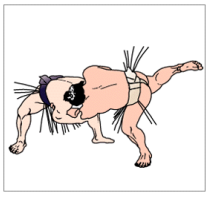
	샅바를 잡고 있던 오른(왼)손을 빼서 상대의 오른(왼) 무릎 바깥쪽을 뿌리치면서 왼(오른)손으로 샅바를 잡고 있는 상대의 오른(왼) 손을 끼고 비틀면서 쓰러뜨리는 기술

⑦ 우치무소(内無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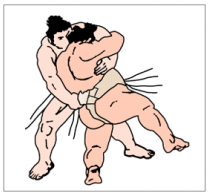
상대의 안 쪽 허벅지를 아래쪽에서 손으로 뿌리치며 몸을 틀어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

⑧ 즈부네리(ずぶね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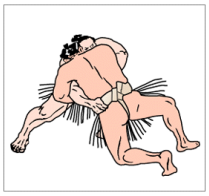
상대의 어깨 혹은 머리를 붙이고 버티면서 상대의 샅바를 잡은 손을 껴안거나 팔꿈치를 잡고서 손이나 목을 동시에 비틀면서 넘어뜨리는 기술

⑨ 우와테히네리(上手捻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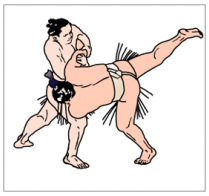
상대의 내민 팔 위로 샅바를 잡아 끌면서 비틀어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

⑩ 시타테히네리(下手捻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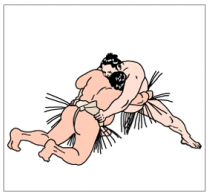
겨드랑이 밑으로 넣은 손으로 샅바를 당기면서 샅바를 잡은 손으로 틀면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

⑪ 아미우치(網打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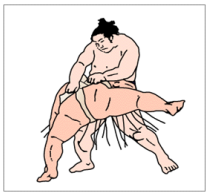
상대의 샅바를 잡은 양 손을 껴 안고 몸을 상대의 팔 위쪽으로 가슴을 펴고서 뒤쪽으로 뿌리치듯이 비틀어 넘어뜨리는 기술

⑫ 사바오리(鯖折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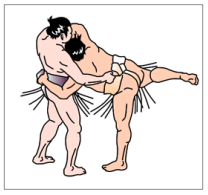
바깥쪽에서 상대의 허리를 양 샅바나 양 손으로 끌어 당겨 위에서 덮쳐 누르듯이 상대의 허리를 아래로 눌러 무릎을 꿇이는 기술

⑬ 하리마나게(波離間投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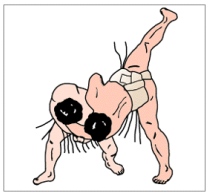
오른손으로 상대방보다 위쪽 샅바를 잡은 경우 오른손을 상대의 머리 위에서 돌려 상대의 오른쪽 허리 샅바를 잡고 오른쪽으로 틀면서 당겨 메치는 기술

⑭ 오사카테(大逆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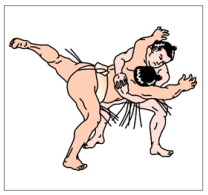
상대의 바깥쪽 샅바를 어깨너머로 잡아 몸을 젖히지 않고 잡은 팔 방향으로 내던지는 기술

⑮ 가이나히네리(腕捻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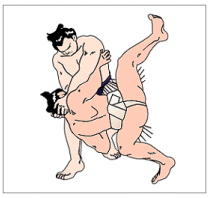
상대의 한쪽 팔을 양 손으로 껴안고 바깥쪽으로 틀어 넘어뜨리는 기술

⑯ 갓쇼히네리(合掌捻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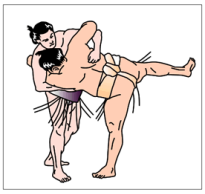
상대의 목 뒤쪽으로 양손을 끼고서 좌우방향 한쪽으로 비틀어 넘어뜨리는 기술

⑰ 돗쿠리나게(徳利投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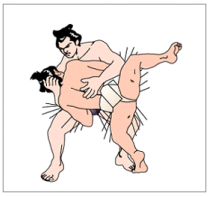
상대의 목,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고서 좌우로 비틀어 넘어뜨리는 기술

⑱ 고테히네리(小手捻り)



상대의 팔을 껴안고 껴안은 방향으로 비틀어 넘어뜨리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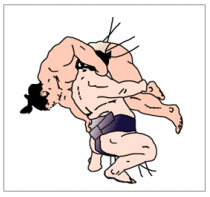
⑲ 구비히네리(首捻り)



한손으로 상대의 목을 감고 또 다른 한손으로 샅바를 잡은 상대의 손을 잡아 좌우 어느 한쪽으로 상대를 비틀어 넘어뜨리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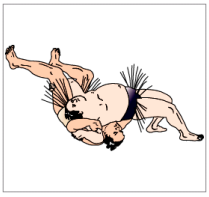
3.5 뒤집기 기술(反り手)

① 이조리(居反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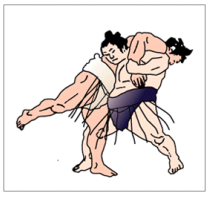
허리를 낮게 하여 상대를 어깨 위로 메고서 양 손으로 상대의 무릎부위를 잡거나 밀어 올려 뒤쪽으로 젖혀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

② 슈모쿠조리(撞木反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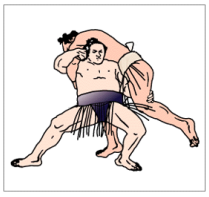
상대를 어깨로 짊어(들어) 올려 뒤쪽으로 젖혀 넘어뜨리는 기술

③ 가케조리(掛け反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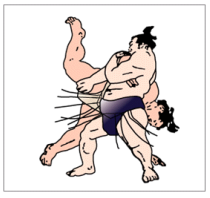
샅바를 잡은 상대의 겨드랑이 밑으로 자신의 머리를 집어 넣고 발을 디디고서 되받아 치듯이 뒤쪽으로 넘어뜨리거나 밧다리로 젖혀 넘어뜨리는 기술

④ 다스키조리(たすき反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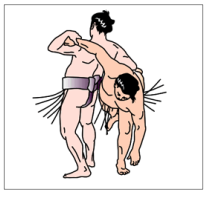
샅바를 잡은 상대의 팔꿈치를 붙잡고 그 팔 밑으로 파고들어 허리를 숙여 다른 한 손으로 상대의 다리를 안쪽에서 잡아 멜빵을 메듯이 상대를 뒤쪽으로 젖혀 넘어뜨리는 기술

⑤ 소토타스키(外たすき)



샅바를 잡은 상대의 손을 감싸 쥐고서 그 위쪽으로 다른 손으로 샅바를 잡은 상대의 안쪽 허벅지로 집어 넣어 상대가 스스로 뒤집어 지듯이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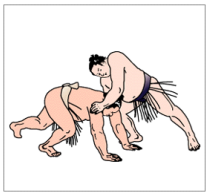
⑥ 쓰타에조리(伝え反り)



상대의 겨드랑이 밑으로 빠져 들어가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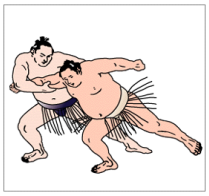
3.6 특수기술(特殊技)

① 히키오토시(引き落と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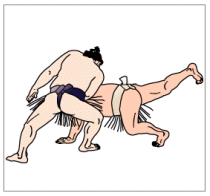
상대의 팔을 끌어당기거나 어깨를 자신의 앞쪽으로 끌어 당겨 상대를 자신으로 앞쪽으로 넘어뜨리는 기술. 샅바 앞쪽을 잡아 당기는 경우도 있다.

② 힛카케(引っ掛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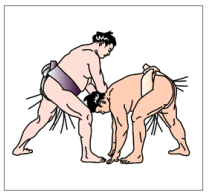
상대가 밀거나 덮쳐 누르는 기술을 구사할 때 그 팔을 한 손으로 안쪽에서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바깥쪽에서 걸면서 가슴을 펴고 상대를 앞쪽으로 쓰러뜨리거나 씨름판 밖으로 튀어 나가게 하는 기술

③ 다타키코미(叩き込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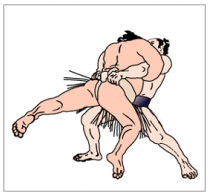
상대가 낮은 자세로 공격하는 경우 가슴을 펴고 한손 혹은 양손으로 상대의 어깨, 등, 팔 등을 쳐서 고꾸라지게 하는 기술

④ 소쿠비오토시(素首落と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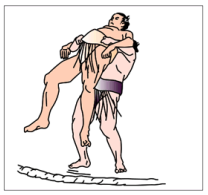
상대의 목 혹은 후두부를 손목 또는 팔로 쳐서 고꾸라지게 하는 기술

⑤ 쓰리다시(吊り出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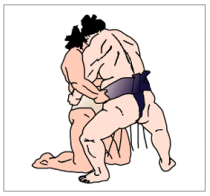
양쪽 샅바를 끌어 당겨 허리를 집어넣고 상대의 정면에서 들어 올려 씨름판 밖으로 내 보내는 기술. 샅바를 잡지 않고 상대를 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다.

⑥ 오쿠리츠리다시(送り吊り出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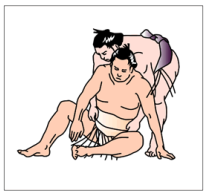
상대 뒤쪽으로 돌아가 상대를 들어 올린 채로 시름판 밖으로 내보내는 기술

⑦ 쓰리오토시(吊り落と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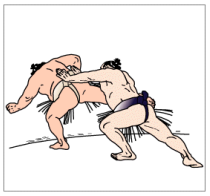
정면 쪽에서 상대를 끌어 올려 그 위치에서 떨어뜨려 쓰러뜨리는 기술

⑧ 오쿠리츠리오토시(送り吊り落と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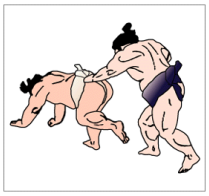
상대를 뒤쪽에서 끌어 당겨 올려 그 위치에서 바로 떨어뜨려 쓰러뜨리는 기술

⑨ 오쿠리다시(送り出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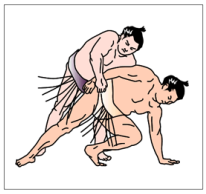
상대 뒤쪽으로 돌아가 밀거나 눌러 씨름판밖으로 내보내는 기술

⑩ 오쿠리타오시(送り倒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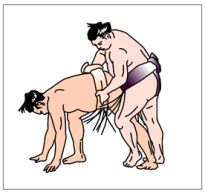


상대 뒤쪽으로 돌아가 밀거나 눌러 씨름판 안에서 넘어뜨리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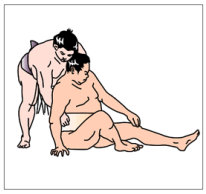
⑪ 오쿠리나게(送り投げ)

	상대 뒤편에서 메쳐 넘어뜨리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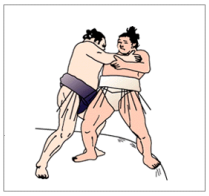
⑫ 오쿠리카케(送り掛け)

	상대 뒤쪽에서 안쪽 혹은 바깥쪽으로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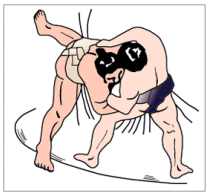
⑬ 오쿠리히키오토시(送り引き落とし)

	상대 뒤쪽에서 자신 앞쪽으로 끌어 당겨 넘어뜨리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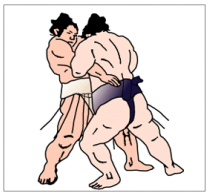
⑭ 와리다시(割り出し)

	서로 샅바를 맞잡은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 상대의 상박 부분을 붙잡거나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을 펼쳐 상대의 겨드랑이 밑으로 찔러 넣고 다른 한손으로 샅바를 잡거나 팔뚝을 감아 씨름판 밖으로 떠미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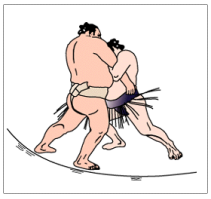
⑮ 웃차리(うっちゃり)

	씨름판 가장자리로 떠밀린 경우, 허리를 낮추고 몸을 젖혀 상대의 몸을 배에 싣고서 좌우방향으로 틀어 씨름판 밖으로 내 던지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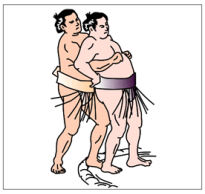
⑯ 기메타오시(極め倒し)

	샅바를 잡은 상대의 손, 목, 어깨 등의 관절에 기술을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넘어뜨리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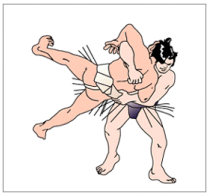
⑰ 기메다시(極め出し)

	샅바를 잡은 상대의 손, 목, 어깨 등의 관절에 기술을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씨름판 밖으로 내보내는 기술

⑱ 우시로모타레(後ろもたれ)

	상대의 등 쪽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상대가 자신에게 기대는듯한 자세를 만들어 씨름판 밖으로 내보내는 기술

⑲ 요비모도시(呼び戻し)

	상대의 몸을 가슴 안쪽으로 끌어 들여 반동을 주면서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 온 상대의 손을 뿌리치고 앞쪽으로 밀어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

3.7 비기술(非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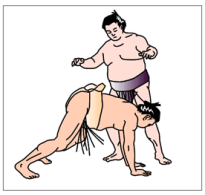
① 이사미아시(勇み足)

상대를 씨름판 가장자리 쪽으로 몰다가 자신의 발끝이 먼저 씨름판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우

② 고시쿠다케(腰砕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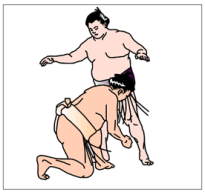
상대가 기술을 걸지 않았지만 몸의 중심을 잃고 주저앉는 경우

③ 쓰키테(つき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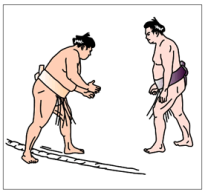
상대의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짚는 경우

④ 쓰키히자(つき膝)



상대의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는 경우

⑤ 후미다시(踏み出し)



상대의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씨름판 밖으로 발이 나가는 경우

4. 스모기술용어의 한국어 번역

4.1 기본기술(基本技)

기 술 명	번역용어	
	번역어(제안)	유사 한국씨름 기술
① 쓰키다시(突き出し)	쳐 밀어내기	밀어치기
② 쓰키타오시(突き倒し)	쳐 넘기기	밀어치기
③ 오시다시(押し出し)	밀어내기	밀어치기

④ 오시타오시(押し倒し)	밀어 넘기기	밀어치기
⑤ 요리키리(寄り切り)	샅바 잡아 밀어내기	밀어치기
⑥ 요리타오시(寄り倒し)	샅바 잡아 넘기기	밀어치기
⑦ 아비세타오시(浴びせ倒し)	덮쳐 넘기기	밀어치기

4.2 던지기 기술(投げ手)

기 술 명	번역용어	
	번역어(제안)	유사 한국씨름 기술
① 우와테나게(上手投げ)	위 샅바 잡아 메치기	배지기. 잡치기, 뿌려치기, 왼배지기
② 시타테나게(下手投げ)	아래 샅바 잡아 메치기	배지기, 잡치기. 뿌려치기
③ 고테나게(小手投げ)	손 껴안아 메치기	배지기, 잡치기. 뿌려치기
④ 스쿠이나게(掬い投げ)	어깨 걸어 메치기	어깨 걸어치기
⑤ 우와테다시나게(上手出し投げ)	위 샅바 끌어 메치기	왼배지기
⑥ 시타테다시나게(下手出し投げ)	아래 샅바 끌어 메치기	왼배지기
⑦ 고시나게(腰投げ)	들어 메치기	잡치기, 배지기
⑧ 구비나게(首投げ)	목 감아 메치기	목감아잡치기
⑨ 잇퐁세오이(一本背負)	어깨 걸어 메치기	어깨 걸어치기, 뒤집기
⑩ 니초나게(二丁投げ)	밧다리	밧다리
⑪ 야구라나게(櫓投げ)	들어 메치기	들배지기, 잡치기
⑫ 가케나게(掛け投げ)	안다리	안다리
⑬ 쓰마미나게(つまみ投げ)	뒤 샅바 올려 메치기	※6)

6) 스모기술의 체계와 한국씨름의 기술체계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관계로 용어의 일대일 번역이 어려운 용어

4.3 걸기 기술(掛け手)

기 술 명	번역용어	
	번역어(제안)	유사 한국씨름 기술
① 우치카케(内掛け)	안다리	안다리
② 소토카케(外掛け)	밧다리	밧다리, 덧걸이
③ 종카케(ちょん掛け)	호미걸이	호미걸이
④ 기리카에시(切り返し)	바깥 무릎걸이	※
⑤ 가와즈가케(河津掛け)	안다리 걸어 뒤집기	안다리
⑥ 게카에시(蹴返し)	차돌리기	안뒷축, 차돌리기
⑦ 게타구리(蹴手繰り)	차당기기	차돌리기
⑧ 미도코로제메(三所攻め)	발 걸어 밀어치기	안다리, 밧다리
⑨ 와타시코미(渡し込み)	뒷무릎 당겨 밀치기	뒷무릎
⑩ 니마이케리(二枚蹴り)	들어 차돌리기	차돌리기
⑪ 고마타스쿠이(小股掬い)	한손 오금당기기	오금당기기
⑫ 소토고마타(外小股)	한손 오금 당겨 뒤집기	오금 당겨 뒤집기
⑬ 오마타(大股)	큰 오금당기기	오금당기기
⑭ 쓰마토리(褄取り)	측면 발목잡기	발목잡기
⑮ 고즈마토리(小褄取り)	정면 발목잡기	발목잡기
⑯ 아시토리(足取り)	두손 오금당기기	오금당기기
⑰ 스소토리(裾取り)	발목 잡아 되치기	발목잡기
⑱ 스소하라이(裾払い)	밧다리 되치기	밧다리 되치기

4.4 비틀기 기술(捻り手)

기 술 명	번역용어	
	번역어(제안)	유사 한국씨름 기술
① 쓰키오토시(突き落し)	밀어 잡치기	잡치기, 배지기
② 마키오토시(巻き落とし)	안아 잡치기	잡치기, 배지기
③ 돗타리(とったり)	팔 잡아 틀어 돌리기	뿌려치기
④ 사카톳타리(逆とったり)	허리 틀어 돌리기	뿌려치기
⑤ 가타스카시(肩透かし)	팔걸어 어깨치기	꼭뒤집기
⑥ 소토무소(外無双)	바깥무릎 메치기	왼무릎
⑦ 우치무소(内無双)	안쪽무릎 메치기	오금당기기
⑧ 즈부네리(ずぶねり)	목·손 동시 비틀기	끌어치기
⑨ 우와테히네리(上手捻り)	윗 샅바 비틀기	※
⑩ 시타테히네리(下手捻り)	아래 샅바 비틀기	끌어치기
⑪ 아미우치(網打ち)	팔 감아 뒤로 젖히기	끌어치기
⑫ 사바오리(鯖折り)	양샅바 끌어당겨 꿇이기	끌어치기
⑬ 하리마나게(波離間投げ)	뒷샅바 끌어메치기	끌어치기
⑭ 오사카테(大逆手)	거꾸로 잡아틀기	끌어치기
⑮ 가이나히네리(腕捻り)	한팔 잡아틀기	끌어치기
⑯ 갓쇼히네리(合掌捻り)	끌어안아 메치기	끌어치기
⑰ 돗쿠리나게(徳利投げ)	목 감아채기	끌어치기
⑱ 고테히네리(小手捻り)	팔 안아 비틀기	끌어치기
⑲ 구비히네리(首捻り)	목 감아 비틀기	※

4.5 뒤집기 기술(反り手)

기 술 명	번역용어	
	번역어(제안)	유사 한국씨름 기술
① 이조리(居反り)	무릎 잡아 뒤집기	뒤집기
② 슈모쿠죠리(撞木反り)	어깨 메어 뒤집기	뒤집기
③ 가케조리(掛け反り)	머리 넣어 뒤집기	뒤집기
④ 다스키조리(たすき反り)	멜빵걸이 뒤집기	뒤집기
⑤ 소토타스키(外たすき)	허벅지 뒤집기	뒤집기
⑥ 쓰타에조리(伝え反り)	겨드랑이 뒤집기	뒤집기

4.6 특수기술(特殊技)

기 술 명	번역용어	
	번역어(제안)	유사 한국씨름 기술
① 히키오토시(引き落とし)	끌어치기	꼭뒤집기, 끌어치기, 발을 댈 경우 차돌리기기술 성립가능
② 힛카케(引っ掛け)	양팔 걸어 메치기	뿌려치기
③ 다타키코미(叩き込み)	때려치기	※
④ 소쿠비오토시(素首落とし)	목 쳐 넘기기	※
⑤ 쓰리다시(吊り出し)	들어내기	※
⑥ 오쿠리츠리다시(送り吊り出し)	후면 들어내기	※
⑦ 쓰리오토시(吊り落とし)	들어 떨어뜨리기	※

⑧ 오쿠리츠리오토시 (送り吊り落とし)	후면 들어 떨어뜨리기	밀어치기에 해당하나 뒤에서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씨름기술 로 성립이 되지 않음
⑨ 오쿠리다시(送り出し)	후면 밀어내기	
⑩ 오쿠리타오시(送り倒し)	후면 밀어 넘기기	
⑪ 오쿠리나게(送り投げ)	후면 메치기	
⑫ 오쿠리카케(送り掛け)	후면걸이	
⑬ 오쿠리히키오토시 (送り引き落とし)	후면 끌어치기	
⑭ 와리다시(割り出し)	상체 잡아 밀어내기	밀어치기
⑮ 웃차리(うっちゃり)	씨름선 들배지기	※
⑯ 기메타오시(極め倒し)	관절 꺾어 메치기	밀어치기
⑰ 기메다시(極め出し)	관절 꺾어 밀어내기	밀어치기
⑱ 우시로모타레(後ろもたれ)	등 껴안아 밀어내기	※
⑲ 요비모도시(呼び戻し)	역반동 내려치기	※

4.7 비기술(非技)

기 술 명	번역용어	
	번역어(제안)	유사 한국씨름 기술
①이사미아시(勇み足)	제발 나가기	※
②고시쿠다리(腰砕け)	주저 앉기	※
③쓰키테(つき手)	바닥 짚기	※
④쓰키히자(つき膝)	무릎 꿇기	※
⑤후미다시(踏み出し)	씨름선 넘기	※

5. 결론

일본의 전통문화의 하나인 스모를 한국어로 사실적인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 목표 문화권인 우리의 씨름의 기술 용어를 일대일 대응 시키기 위해 한국 씨름계 전문가의 자문[7]을 득하는 과정에서 스모기술의 체계와 한국씨름의 기술체계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관계로 용어의 일대일 통번역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씨름의 경우 샅바를 잡은 상태에서 경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사용에 있어서 상대를 좌측, 우측 또는 뒤로 밀거나 당기는 등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며, 그 방향과 함께 넘어뜨리는 형태 그리고 사용하는 부위 등에 따라서 기술명이 다르게 붙여진 경우가 많으나 스모의 경우 상대와 거리를 두고 경기가 시작되며 미느냐, 넘어뜨리느냐, 당기느냐 등에 따라 기술을 구분하고 있기에 좌측으로 혹은 우측으로 넘기느냐?, 넘어뜨릴 때 어느 부위를 사용하느냐 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모의 상당 수 기술을 한국씨름용어로 번역할 경우 하나의 기술도 선수가 사용하는 방향이나 형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몇 가지의 기술로 번역이 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스모용어를 한국씨름용어로 번역하는 것은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스모 기술의 원천음을 그대로 음차 번역하게 되면 목표 문화권에 속하는 청자 및 독자는 스모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불가하기에 이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사실적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일본 문화관련 어휘 혹은 텍스트에 대한 통번역자들의 충분한 이해와 연구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본고에서 제안된 일본 스모의 기술용어의 한국어 번역용어에 대한 지적과 수정을 기대한다.

【參考文獻】

이근희(2008)『번역의 이론과 실제』한국문화사, p.6
이철희·이용인(1978)「씨름과 스모우의 비교연구」『충남대학교자연과학연구소 학술연구지』제5권

논문투고일 : 2013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3년 07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7월 21일

7) 한국씨름연구소(http://ynucc.yeungnam.ac.kr/~ssi/) 박승환소장의 자문

<要旨>

일본문화용어의 사실적 의미전달을 위한 번역 연구

－일본 스모기술용어의 한국어번역 연구－

본고는 일본문화를 대표하는 키워드의 하나이며 일본이들이 가장 즐기는 스포츠인 '스모'와 관련된 기술 용어의 개념 정리 작업이 극히 미비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일본스모협회에서 주관하는 '오즈모(大相撲)'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술 87가지 스모경기의 기술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본 것이다.

스모기술의 체계와 한국씨름의 기술체계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관계로 용어의 일대일 통번역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들어 났지만 일본어 비학습자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사실적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일본 문화관련 어휘 혹은 텍스트에 대한 통번역자들의 충분한 이해와 연구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Japanese Cultural Terms to Transfer Realistic Meaning

－Focused on Japanese Sumo Technical Terms－

The study is translating the 87 Sumo technical terms, which the 'Ozumo(大相撲)' officially recognizes as a standard, into Korean. The terms are the key words of Japanese culture and Japanese people greatly enjoy Sumo in their daily lives. In Korea, however, the terms are not translated and conceptualized yet. This is why the study is trying to translate and conceptualize the terms into Korean.

In fact, there are basic differences between Sumo and SSirum(Korean Wrestling) and it is not easy to translate each term into Korean correctly the way as it has in Japanese. This is some realistic limitation each language has on its own in the translation. But, there must be some continuous efforts, by the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translating the Japanese cultural terms and texts into Korean to help learners to understand the Japanese language fully and to communicate the meaning as it is.